



ISSN 2466-1279

언론 사람

3 2021 VOL.249

04

인터뷰
이나리 <헤이조이스> 대표

06

Newmedia of the World
클럽하우스와 팩트체크

Contents

2021 March

04

인터뷰 人+人

이나리 <헤이조이스> 대표 플래너

06

Newmedia of the World

클럽하우스와 팩트체크

08

세상사는 法

삶과 함께 잃어버린 정인의 권리

10

돋보기

매화가 전하는 봄 소식

12

이달의 시

쇠로 된 나무에 꽃이 피는 비경(秘境)

14

단어의 중력

원망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함께’있다는 것의 소중함, ‘미나리’

18

NEWS

위원회 뉴스·위원 동정

19

키워드로 보는 40년사

웹드라마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일 2021년 3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표지작품 Pluie <A Gorgeous Forest Tree>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
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
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월 8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UN 여성기구(UN Women)는 코로나19가 여성의 사회참여에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1년 세계 여성의 날 표어를 “여성 리더십 : 코로나19 세계에서 동등한 미래 달성”으로 정했는데요.

언론  사람 3월호는 여성들을 위한 커리어 문제 해결 플랫폼 '헤이조이스'의 이나리 대표를 만나 여성의 성장, 연대, 자그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Newmedia of the World>에서는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 '클럽하우스'가 저널리즘에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는지 짚어보았고, <내 마음의 활동사진>에서는 화제의 영화 '미나리'에 담긴 가족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코끝이 시린 날들을 지나 어느새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언론  사람 3월호와 함께 아늑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나리 <헤이조이스> 대표 플래너

매일매일 성장하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Q 약 10번의 퇴사를 경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언론사 기자로 오랜 기간 일하시다 스타트업 대표라는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A 새로운 일에 흥미를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약 20년간 기자로 일하면서도 라디오에 출연하거나 책을 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나 경험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2009년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방문연구원 생활이었는데, 실리콘밸리의 중심부에서 모바일 혁명과 스타트업의 존재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널리스트로서 지금 세상의 변화와 동력이 무엇인지를 충실히 지면에 담아야겠다고 결심했는데 실제로 중앙일보 IT·재계 팀장을 맡아 국내 주요 테크 기업들을 취재하며 당시에는 생소했던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공유경제 등을 다뤘어요. 많은 분들이 천생기자라고 하실 만큼 기자로서의 삶에 큰 보람을 느꼈는데 점점 저널리스트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기술과 기업이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나가는지에 관심을 꾸준히 갖다가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Q 현재 대표 플래너로 계신 <헤이조이스>는 ‘여자들의 커리어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A <헤이조이스>는 커리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입니다. 지금의 여성들은 일에 대한 생각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놓여있고, 이전의 방식으로는 일을 지킬 수도, 잘할 수도 없어졌어요. 특히 그런 문제에 직면해 혼란을 겪고 있는 2, 30대 여성들이 평생 일하는 여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커리어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와 경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헤이조이스>의 목표입니다. 현재 8천 명 정도의 회원

이 가입되어 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이벤트 모임과 유용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Q 여성들이 자신만의 커리어를 성장 시켜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생각과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특히 많은 여성들이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나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지'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직무나 회사문화가 맘에 안 들어서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실수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 해보는 것이예요.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고 전수해보거나, 직접 경험해보거나 경험해본 사람과 교류하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나가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생겨요.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을 세우려는 습성을 버리고 의미 있는 관계와 경험의 매트릭스를 다층적이고 다양하게 쌓아가길 바랍니다.

Q 기혼 여성의 경우, 특히 일·가정 양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A 아이가 아프거나, 학업이 뒤떨어지거나, 퇴근하고 나면 집이 엉망이거나 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일을 그만두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엄마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자신이 부족하거나 잘못 살고 있다고 탓하지 않았으면 해요. 또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일이라는 것이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어서 설령 월급의 전부가 양육비로 쓰이는 상황이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신적, 물리적으로 이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Q 리더로서 스스로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보통 리더십에 대해 얘기할 때 성과지향적 리더십, 관계지향적 리더십 등의 유형을 꼽는데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헤이조이스>에서 함께 일하는 플래너들 대부분이 2, 30대인데 평소에 이분들을 대할 때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커리어를 이어갈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코칭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요. 실제로 <헤이조이스>에서는 요청과 토론이 있을 뿐 지시가 없어요. 각 파트 리더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죠. 정년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서 2, 30년 어린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권위에 기대지 않고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며 그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Q 여성 리더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비해 실제 일터에서 여성 리더를 만나는 일은 드물게 느껴집니다. 더 많은 여성 리더가 탄생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A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이 이기기는 쉽지 않죠. 가장 큰 문제는 좋은 롤 모델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남성들은 회사에 들어오면 임원도 대표도 다 남성이니까 자신의 커리어 성장에 대해 의심이 없어요. 동기부여가 확실하죠. 하지만 여성들은 그런 전망을 그리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출산, 육아로 인해 회사를 자의 반 타의 반 떠나는 선배들을 보며 지레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회사 내에 여성인 선배가 있다면 더 많이 대화를 나눠보고, 회사 내에서 찾기 어렵다면 회사 밖에서라도 지향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길 바라요.

“정년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서 2, 30년 어린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권위에 기대지 않고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며 그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위원회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클럽하우스와 팩트체킹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흥분을 먼저 불러 모은다. 사람들은 찬사와 경탄을 연발하며 미래를 낙관한다. 모든 기술에 비판적, 비판적 전망을 제시할 이유는 없지만, 반사적 환호도 경계할 필요는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그랬다. 2010년대 초반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재스민 혁명과 이집트 혁명에 기여할 때만 해도 두 소셜미디어에 대한 평가는 칭찬일색이었다.¹⁾ 세상을 바꾸는 무기라는 평가도 적잖았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오간데 없고 ‘독점’, ‘장악’과 같은 어두운 수식어들이 이들 미디어 주변을 감싸고 있다. 기술 혹은 플랫폼이란 모름지기 기대와 실망의 반복적 패러다임 안에서 공전하며 사용자의 욕망을 먹고 살면서 명멸하는 도구일 뿐이다. 인류 모두에게 평등

한 정보 접근의 세상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했던 웹(Web)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가 고장 난 웹을 다시 뜯어고치겠노라며 ‘인럽트(Inrupt)’라는 스타트업을 시작할 정도이니 말해 무엇 하겠는가.

또다시 전 세계 사용자들을 흥분시키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앱이 등장했다. 이번엔 클럽하우스가 주인공이다. 언제나처럼 모두가 들떠있고 열광하고 있는 중이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오디오 기반의 소셜네트워크 앱이다. 직원이 10명 남짓에 불과한 이 스타트업은 1년 만에 유니콘으로 등극하면서 과거의 모든 성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다.

클럽하우스의 가장 큰 무기는 친근한 대화와 기록의 삭제

다.²⁾ 커피하우스에서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듯 가벼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처음 본 이들과 친목을 형성한다. 때론 전문성 있는 토론을 벌이며 가상의 콘퍼런스를 열기도 한다. 중재자가 여러 전문가를 초대해 깊은 담화를 나누기도 하고 청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끄집어내기도 한다. 클럽하우스는 공론장의 모범 모델이 된 커피하우스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저널리즘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가공할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클럽하우스는 조직과 개인, 집중과 분산의 팽팽한 긴장 관계에서 개인과 분산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플랫폼이다. 여느 소셜미디어들처럼 유명 인사들과 엘리트들이 초기 문화를 선도하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 채팅방의 주력은 이름 없는 개인들이다. 팟캐스트처럼 적잖은 장비를 마련해 무게를 잡을 필요도 없기에 진입장벽이 낮고 참여 범위도 넓다. 주제에 따라 수많은 청자들이 다른 업무를 보며 귀동냥하기도 편하다.

문제는 기록의 삭제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대화는 채팅룸을 닫는 순간 종적을 감춘다. 유튜브와 달리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공유를 통한 확산의 여지가 줄어들기에 보안의 강점이 커지고 위험의 크기도 반비례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여기에 빈틈이 존재한다. 저널리즘 측면에서 팩트체킹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이다.

이미 한 팩트체커가 경고음을 먼저 울렸다.³⁾ 그는 클럽하우스에서 백신과 도널드 트럼프를 검색해 관련 대화방을 엿들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려할 만한 대화가 오가진 않았다. 그러나 이 경험 속에서 두려움을 발견했다고 했다. '기록의 삭제'가 가져올 팩트체킹 저널리즘의 불능성이 그것이다. 클럽하우스 대화방에서 허위정보가 오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기록이 남아야 한다. 하지만 대화가 끝나는 순간 대화 내용이 삭제되기

에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모든 팩트체커들이 대화방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할 수는 없다. 팩트체킹을 시도할 즈음, 허위정보에 한껏 노출된 클럽하우스 사용자들은 그럴듯한 논리에 자신들의 인지 공간을 허락하며 편견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그릇된 정보가 귀를 타고 강력하게 인지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환경을 만드는 클럽하우스의 인기는 팩트체커들에겐 거대한 도전이다.

지난해 허위정보 관련 연구자인 니나 잔코위츠(Nina Jankowicz)는 '페이스북 그룹'을 허위선동 정보 확산 위험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미국을 파괴한다"고 경고했다.⁴⁾ 그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공개 그룹은 공개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페이스북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럽하우스는 모더레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라는 페이스북 그룹의 장단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기록의 삭제'라는 더 위험한 기능을 제공한다.

물론 클럽하우스는 허위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미디어가 아니다. 음성 기반으로 대화를 촉진하고 관계를 확장하는데 특화된 소셜미디어다. 클럽하우스 창업자는 증오 표현과 관련된 엄격한 지침을 갖고 있고 신고 기능도 두고 있다고 하지만, 고속 성장 단계에서 이를 제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반유대주의 발언을 퍼뜨린 채팅룸으로 홍역을 앓은 적도 있다.⁵⁾

지금 저널리즘은 더 '큰놈'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은밀한 확산을 꿈꾸며 부나방처럼 옮겨 다니는 허위정보 생산 집단과 이들의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팩트체커들의 싸움은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저널리스트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진 만큼, 저널리즘이 시민과의 협업을 어떻게 재설계 할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1) <https://www.nytimes.com/2011/01/25/opinion/25iht-edcohen25.html>

2) <https://www.joinclubhouse.com/check-1-2-3>

3)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21/factually-what-will-fact-checkers-find-on-clubhouse/>

4) <https://www.npr.org/2020/06/22/881826881/facebook-groups-are-destroying-america-researcher-on-misinformation-spread-onlin>

5) <https://www.businessinsider.com/clubhouse-anti-semitism-chat-on-yom-kippur-2020-9>

삶과 함께 잃어버린 정인의 권리



작년 서울시 양천구에서 8개월 때 양부모에게 입양된 아이가 학대로 16개월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정인이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다. 사망하기 전까지 보육교사와 의사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학대로 복부 장기가 심하게 손상되어 어른도 참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망 전날, 정인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좋아하던 과자도 먹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고 전해져 국민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양모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정치권, 사회단체 등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사건을 보면, 더더욱 신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신이 있다면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이토록 심한 고통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제라도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서 정인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을까. 언론사는 정인에게 장화홍련의 원님일까.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법적 문제의 우려를 감수하고서 이 사건의 보도 수위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인 정인의 이름이나 사진 공개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2년 나주 성폭행 사건 발생 당시 몇몇 언론사들이 피해 아동의 사진, 일기장 등을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 아동과 가족이 해당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명예훼손, 초상권,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 나주 성폭행 사건과 다르게 피해 아동이 이미 사망한 데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가족이던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피해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가족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법원이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일어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이미 사망한 사자(死者)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관념하기 어렵고, 사람은 생존

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자 본인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가합40917(확정)]라고 판단한 것을 보면, 정인이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 피해를 주장할 권리를 함께 잃어버린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정인이가 생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보도로 정인에게 가해질 2차 피해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가해자 공개 측면에서는 어떨까. 피해 아동의 개명 전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었고 양부모의 실명과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따지면 양부모의 신원도 특정이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특정 여부는 ‘보도 대상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고, 피해 아동을 아는 사람은 그 양부모도 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특정되면 피해자도 특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도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도 두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언론사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피해 아동, 아동학대 행위자,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엄수 규정을 두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다만 위 법률은 아동보호사건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 사건처럼 피해 아동이 사망하여 아동보호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용인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으나, 가해자의 친자녀 등의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비공개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보도가 단서가 되어 가해자의 신원이 쉽게 검색되고 있는데, 이 상황은 문제가 없을까. 기본적으로 공인의 공적 사안에 관한 보도라면 실명을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 바꿔 말하면,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여도 사인에 관한 것이라면 실명보도가 위법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기사에서 공인 아닌 식당 사장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정인이 사건 보도도 입양가정의 아동학대라는 공적 사안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자는 공인이 아닌 사인이므로 기본적으로 신원 공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또 가해자들의 친자녀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원이 예외적으로 실명보도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떨어지더라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비법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알리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등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실제로 양부모가 언론사에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가지는 공익성이나 사회적인 파급력을 생각하면 언론사가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들은 어쨌거나 법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보자면, 한없이 미안하고 슬플 뿐이다. 정인이 사건을 보며 아일란 쿠르디 사진을 보았을 때의 먹먹한 슬픔을 떠올렸다. 세 살배기 남자아이가 플라스틱 배를 타고 유럽으로 오는 와중에 배가 전복되어 터키의 해안가로 떠밀려 모래사장에 얹드려 사망한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위 한 장의 사진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슬픔은 유럽의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영국이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게 된 도화선이 되었다. 남은 어른들은 정인에게 미안한 마음과 눈물을 꺾고 닦아 정인의 허망하고 슬픈 죽음이 조금이라도 의미를 갖도록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죄스럽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죄스러운 일이다. 나는 무신론자에 가깝지만, 부디 정인에게 내 세라는 것이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1) 피해자 이름으로 명명하는 사건명에 대해 비판하며 ‘양친구 아동학대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 이름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글에서는(바람직하지는 논외로 하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겠다.

2)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정도가 강하거나 악질적인 경우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그 외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오히려 비밀엄수 대상에서 빠져버려 피해 아동 등이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입법상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2021. 1. 6.자 로톡뉴스, 「왜 아무도 이름 공개를 문제 삼지 않나」 참조)

매화가 전하는 봄 소식

<조매(早梅)> 일찍 핀 매화

당(唐) 제기(齊己, 약 864-937)

萬木凍欲折, 만목동욕절

많은 나무들이 얼어서 부러지려 하는데

孤根暖獨回, 고근난독회

남다른 이 뿌리만이 온기를 홀로 회복했네.

前村深雪裏, 전촌심설리

앞마을에 눈이 많이 쌓인 가운데

昨夜一枝開, 작야일지개

어젯밤 한 가지에 꽃이 피었구나.

風遞幽香出, 풍체유향출

바람은 그윽한 향기를 전해 주고

禽窺素艷來, 금규소염래

새는 희고 고운 꽃을 보러 온다.

明年猶應律, 명년유응률

내년에도 여전히 제때에 맞추어

先發映春臺, 선발영춘대

먼저 피어나 봄을 맞는 누대를 비추리라.

체(遞) : 전하다, 전달하다

응률(應律) : '12율(律)에 따르다'라는 뜻에서 일 년 열두 달의 순환에 따름을 가리킨다.

춘대(春臺) : 상춘(賞春)하는 누대를 가리킨다.

지난 2월에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설을 지냈다.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일 수도 없었고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설을 지냈기 때문에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 설은 대개 입춘 즈음에 온다. 한 해의 시작은 봄이고 봄의 시작이 입춘이다. 지금의 음력은 윤달을 넣는 방식으로 정월 초하루, 즉 설날을 입춘에 맞춘다. 달의 운동을 해의 운동에 맞추는 것, 즉 음력을 양력에 맞추기 위해 윤달을 넣는 것이다. 따라서 입춘과 그 즈음에 오는 설날이 한 해의 시작이자 봄의 시작이 된다.

새해가 되면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이다. 그래서 매화를 '봄의 전령(傳令)'이라고 한다. 당나라 백낙천은 <춘풍(春風)>이라는 시에서, "봄바람에 가장 먼저 피는 것은 정원의 매화로다(春風先發苑中梅)"라고 읊었다. 아직 겨울이 마무리되지 않은 때에 추위를 무릅쓰고 피어나는 매화를 보고 사람들은 그 강인함과 고상함, 그리고 소박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반가워한다.

역대로 매화를 읊은 시들이 많다. 대개 매화의 이런 특성을 칭송하고, 나아가 자신의 지향을 기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위에서 소개한 제기(齊己)의 시도 그 중의 하나이다. 제기는 당나라 말기의 유명한 시승(詩僧)으로, 교연(皎然), 관휴(貫休)와 함께 '당삼고승(唐三高僧)'으로 불렸다. 그는 당의 쇠퇴기에 살면서 당시의 혼란한 사회현실을 시가를 통해 반영하기도 했다.

시의 첫째 연은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의지를 생각한다. 현상에서 원리를 파악해 낸 시인의 이지적 감수성이다. 사람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꽃을 피우는 매화에서 어려움에 굽히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본다. 매화가 '매

난국죽(梅蘭菊竹)’으로 칭송되는 사군자(四君子)의 첫째가 되는 이유이다.

둘째 연 두 구절이 유명하다. 수북이 쌓인 눈 속에서 막 꽃을 피워낸 가지가 있다. “어젯밤 한 가지에 꽃이 피었구나”라고 했으니 어제 낮까지도 피지 않았던 꽃이다. चु고 삭막한 엄동설한의 끝자락에서 언뜻 발견한 반가운 봄의 전령이다. 이 연의 ‘한 가지[일지(一枝)]’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당나라 말기의 시인이었던) 정곡이 원주에 있을 때 제기가 시를 가지고 그를 찾아갔다. <일찍 핀 매화(早梅)>라는 시가 있었는데, 읊기를 “앞마늘에 눈이 많이 쌓인 가운데, 어젯밤 몇 가지에 꽃이 피었구나(前村深雪裏, 昨夜數枝開)”라고 했다. 정곡이 말하기를, “‘몇 가지(數枝)’가 핀 것은 일찍 핀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一枝)’라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자 제기는 자신도 모르게 엎드려 절을 했다. 이 일로 사대부들이 정곡을 ‘글자 한 자를 가르쳐 준 스승[일자사(一字師)]’이라고 했다(鄭谷在袁州, 齊己携詩詣之. 有早梅詩云, 前村深雪裏, 昨夜數枝開. 谷曰, 數枝非早也. 未若一枝. 齊己不覺下拜, 自是士林以谷爲一字師). [송(宋) 위경지(魏慶之), 《시인옥설(詩人玉屑)·‘일자사(一字師)’>]

‘일자사(一字師)’는 이후로 문인들 사이에 곧잘 인용되는 가화(佳話)로 전해진다.

셋째 연은 매화의 특징을 향기와 자태의 형용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왕안석의 <매화(梅花)>라는 시가 이 구절의 의경을 잘 살려 주고 있다.

牆角數株梅
凌寒獨自開
遙知不是雪
時有暗香來

담장 모퉁이의 몇 그루 매화나무가
추위를 뚫고 홀로 꽃을 피웠구나.
멀리서도 눈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
이따금 전해 오는 그윽한 향기가
있어서라네.

당나라 용욱(戎昱)도 <조매(早梅)>라는 시에서, “봄이 왔는데도 눈이 아직 녹지 않았나 의심했네(疑是經春雪未消)”라고 읊었듯이 눈 내리는 시기에 피는 매화는 자주 나무에 쌓인 눈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그래서 매화를 ‘향기 나는 눈[향설(香雪)]’이라고까지 했다.

넷째 연은 매화를 만난 반가움을 다음 해까지의 기대로 연결하고 있다. 매화는 어느 나무보다도 먼저 꽃을 피우니, 내년에도 틀림없이 봄의 시작과 함께 꽃을 피우리라는 희망과 확신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자연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소박한 자태와 은은한 향기로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매화를 꽃 피웠다. 매화가 전하는 봄소식에서, 우리에게도 चु고 힘든 시기를 벗어나 온화하고 편안한 봄날이 곧 올 것임을 믿는다.

쇠로 된 나무에 꽃이 피는 비경(秘境)

철목개화(鐵木開花)

고영섭

—
헐떡거리던 지난해의 마음을
탁 놓아버린 곳에
새싹이 호젓이 솟아났다

갇은 흙탕물 속에서
쉬고 또 쉬며
흙들을 가라앉히자
쇠로 된 나무에 꽃이 피었다

엷힌 실타래와 깨어진 유리조각들을
나무하고 밥 짓고 빨래하듯
단순 반복의 불도저로
깔끔하게 밀어버리자

텅 빈 내 마음의 별판 위에
온갖 빗들이 쏟아져 내리며
새 세상을 연출하는 이 봄날.

-『황금똥에 대한 삼매』(연기사, 2008)에서 -



이달에 함께 읽는 고영섭(1963~) 시인의 작품 <철목개화(鐵木開花)>는 그 제목에서부터 우리를 낯설게 하고, 난감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어떤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금세 ‘철목개화(鐵木開花)라니요?’, ‘쇠로 된 나무에서 꽃이 핀다니요?’ 하면서 우리는 일상어법과 상식적 의미를 벗어난 제목의 일탈성에 당황하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변에서 보았던 일반적인 시들의 제목과 상당히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종교이자 사상 가운데 하나인 선불교의 화두와 같은 것으로서 그 공안(公案)주석서인 『벽암록(碧巖錄)』 제40칙(則)의 서문에 들어 있는 ‘선구(禪句)’입니다. 이해를 위하여 이 선구의 전후 맥락을 조금 보충해 본다면 “휴거(休去歇去) 철목개화(鐵木開花)”가 함께 어우러져 이 선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해 보면, “쉬고 또 쉬면 쇠로 된 나무에도 꽃이 핀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이된 문장을 보아도 궁금증과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도대체 ‘쉰다는 것’이 무엇인가, ‘쉬게 되면 어떻게 쇠로 된 나무에서 꽃이 피게 된다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거칠지만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여기서 ‘쉰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왜곡된 인간들의 인식작용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주적 실상 그 자체를 본다는 것이며, ‘쇠로 된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것’은 그런 실상을 통찰하면 그 자리에서 우주가 한 몸이 되어 경계 없이 묘용의 춤을 추게 되는 것이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지는 종교적 영역에 속한 것 같지만 실은 시를 포함한 예술이 출발하고자 하는 원점이며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무한의 상상력과 무상의 자유가 구현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시를 포함한 예술의 본질은 ‘쉼’으로써 ‘쇠로 된 나무에서도 꽃이 피게 하는 데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영섭 시인은 그의 시 <철목개화(鐵木開花)>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첫째는 제1연에 드러나 있듯 험뎡거리던 지난해의 마음을 탁 놓아버리니 그곳에서 새싹이 호젓이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험뎡거리던 지난해의 마음’이란 탐욕으로 구하면서 의존하고자 했던 낡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둘째는 제2연에서 보이는 것처럼 흙탕물 같은 현실에서 쉬고 또 쉬으로써 실상의 진정한 자리로 돌아가 혼란스러움을 가라앉히자 쇠로 된 나무에서도 꽃이 피게 되는 비경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흙탕물 같은 현실이란 욕망으로 들끓고 시끄러워져서 바닥의 근원적인 맑음과 고요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요. 그 셋째는 제3연과 제4연에 걸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유리조각처럼 깨어져버린 마음을 단순함을 중심으로 둔 일념의 힘으로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니까 텅 빈 마음의 별판이 비로소 드러나며 그 위에 온갖 빛들이 쏟아져 내리고 새봄의 풍경이 연출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타래처럼 얽히고 유리조각처럼 깨어진 마음이란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길을 잃고 파편처럼 나뉘어 고통스러운 미망과 통증의 현실입니다.

바야흐로 무척이나 춥고, 길고, 답답했던 겨울이 지나가면서 봄날이 지척에 와 있습니다. 그 봄기운 속에서 해마다 그러했듯이 영춘화가 피고, 진달래가 붉어지고, 새싹이 돋고, 우리들도 새로운 계획을 안은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런 봄과 더불어 올해에는 고영섭 시인이 전달해 주는 위와 같은 또 다른 차원의 봄과 비경을 보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인류사의 봄만이 아닌 자연사의 봄을, 인간사의 봄만이 아닌 우주사의 봄을, 내 생각만의 봄이 아닌 실상과 실재의 봄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봄을 몇 겹의 풍요로움과 깊이를 가진 고차원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봄에 보다 넓어지고,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

연애

눈물을 터뜨린 건 네가 아니라 친구였다. 친구는 알고 있었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너를 통째로 집어 삼켰고, 그것이 너를 잠식해가고 있다는 것을. 친구의 눈물로 인해, 지상에서 네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너는 깨우쳤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일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자신의 마음 같지 않은 타인의 마음에 기대고 의지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예기치 않은 행복인가 예상할 수 있는 불행인가. 이 이야기의 끝은 안주인가 상실인가 그것도 아니면 어디에도 이를 곳 없는 공허인가.

그런 물음표들을 마음에 품고 너는 테겔 공항에 내렸다. 봄이었으나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아직 멀어 바람이 차다. 성급하게 꺼내 입은 봄 재킷의 옷깃을 여미며 너는 몸을 떨었다.

“출지?”

마중을 나온 친구가 너의 기색을 살피며 말했다. 갑자기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같은 말은 아마 삼켰을 것이다.

“베를린에 친구가 있으니 좋구나.”

너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어쩐지 애처로워서, 친구는 왈카스를 꺼안고 말했다.

“어디 가고 싶어? 먹고 싶은 건?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짐을 풀고 어디론가 가자.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햇살이 짹짹한 곳으로.”

네가 끌어안고 있는 게 무엇이든 잠시 잊어버릴 수 있게, 라는 말은 역시 삼켜졌다.

오후가 되자 기온이 오르고 눈이 부실 만큼 환한 햇살이 너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주말의 마켓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왁자지껄한 소음, 한껏 들떠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 대기를 떠다니는 음식 냄새 대신 쓰러진 빈 술병과 바람에 떠다니는 휴지 조각들이 너를 맞았다. 친구는 팬스레 미안해했지만 너는 파티가 끝난 후의 씁쓸하고 달콤한 여운이 싫지 않았다.

“아주 작은 기척이나 움직임 같은 것들에 일일이 반응하게 돼. 모든 게 맨살에 닿는 느낌이야.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도 없어.”

네 말에 친구는 가만히 너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어쩌다 그런 사랑에 빠진 거야,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네가 품고 있는 사랑, 혹은 너를 품고 있는 사랑은 잠시도 잊을 수가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너와 사랑을 분리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 사람을 원망해?”

친구의 말에, 너는 응, 하고 짧게 대답했다.

원망할 원(怨)은 누워 뒹굴 원(死)과 마음 심(心)이 만나 만

들어졌다. 분하거나 서럽거나 억울하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 누워 뒹구는 심정이다. 누군가를 탓하고 미워하는 것이 원망(怨望)이다.

멀 원(遠)은 쉬엄쉬엄 갈 착(訖)과 옷 길 원(袁)으로 이루어졌다. 옷깃이 넉넉한 옷, 큰 옷, 옷깃이 늘어져 있듯 길이 매우 ‘멀다’는 의미다. 먼 앞날의 희망이 원망(遠望)이다.

원할 원(願)은 근원 원(原)과 머리 혈(貢)이 결합한 모습이다. 원래는 ‘큰 머리’ 또는 ‘머리가 크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머리가 커진다는 것이 아는 것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바라는 것도 많아진다고 하여 ‘원하다’, ‘바라다’는 뜻이 되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원망(願望)이다.

원망(怨望)과 원망(遠望)과 원망(願望), 세 가지의 감정이 네 속에서 부딪치며 파괴되고 합해지며 폭발했다. 미움과 희망과 바람이 순서를 바꾸어가며 찾아왔다. 너의 그런 사정과 무관하게,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동실동실 떠다니고 따듯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마켓의 한켠,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건물 앞에 맨발의 한 소녀가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네게 들이닥쳐 너의 맨살, 너의 맨마음에 닿았다. 너는 너도 모르게 아, 하고 탄식했고 그 신호를 받아 새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눈물을 터뜨린 건 네가 아니라 친구였다. 친구는 알고 있었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너를 통째로 집어 삼켰고, 그 것이 너를 잠식해가고 있다는 것을. 친구의 눈물로 인해, 지상에서 네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너는 깨우쳤다. 더 이상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었다. 그 사실이 칼자국처럼 선명하게 네 마음에 새겨졌다.

“즐거움이나 괴로움, 행복이나 불행, 안주나 상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인생은 결코 공허하지 않다는 거야.”

네 말에, 책을 읽던 소녀가 문득 고개를 들고 너와 친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도 미소를 지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미움과 희망과 바람이 다시 한 번 자리를 바꾸고 뒤섞였다. 친구는 문득 깨달았다. 너는 괴로운 행복이고 즐거운 불행이며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movie



‘함께’있다는 것의 소중함, ‘미나리’

※영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아칸소의 푸른 들판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를 온다. 길쭉한 컨테이너가 하나 놓여있을 뿐 주변엔 오직 풀만 무성하다. 엄마 ‘모니카(한예리)’는 이런 곳에서 사는 게 싫지만 ‘제이콥(스티븐 연)’은 농장을 일구어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꿈에 부풀어 있다. 심장이 안 좋은 ‘데이빗(앨런 김)’과 일찍 철이 든 누나 ‘앤(노엘 조)’은 다툼이 잦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 일쑤다.

‘미나리(감독 정이삭, 2020)’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너온 이민 1세대 한국 가족들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많은 등장인물 없이 모니카 가족의 한 때를 중점적으로 보여줄 뿐이지만 미국의 역사가 이민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흘러왔는지 꿰뚫게 해준다.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해 주자’고 약속했던 모니카와 제이콥은 병아리 성(性)감별과 같은 노동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이콥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압축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었던 6, 70년대 한국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 아버지 세대로부터 가장



의 역할은 그런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를 떠나 아칸소에 온 것은 돈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담보로 한 모험이었다. 제이콥이 트랙터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장면은 짧지만 의미심장하다. 유일하게 사무실을 배경으로 한 이 신에서 은행원은 레이건 대통령이 농업을 장려하고 있으니 좋은 선택을 한 거라며 제이콥을 부추긴다. 그는 제이콥과 얘기를 끝낸 후 바로 데이빗에게 사탕을 권하는데, 당시 미국으로의 이주와 성공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는지 감각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사실 공화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의 백악관 마지막 연설이 이민자들에 대한 헌사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그의 임기 동안 이민자들의 노동력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구호 아래 값싸게 소비되었고, 레이건도 이민자들이 미국적 가치와 문화에 '온전히' 동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민자들을 '미국인'으로 인정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한다는 태도만큼은 단순한 사탕발림 이상의 것이었다. '미나리'는 그러한 거시사를 구성하는 일부이자 주체로서 제이콥 가족의 이야기를 밀도 있게 그려나가는데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주로 한인 교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활했으며,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을 맛봤던 시절이 이 영화에 섬세하게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 혹은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경험이 없더라도 '미나리'는 가족영화로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주로 데이빗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이 영화에는 3대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 사이클을 보는 것 같다. 데이빗은 소년에서 장성해 먹고 살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인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이 될 것이다. 관객들은 이들 각자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반추하게 된다.

'미나리'는 자본의 출처나 감독의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 영화지만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이며, 한국어 대사 뿐 아니라 한국 음식과 놀이 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한국 관객들에게 더욱 친숙한 부분이 많다. 일례로, 가부장적인 제이콥이나 종교심 강한 모



니카는 그 세대에 대물림된 혹은 강요된 한국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전형성을 띄고 있다. 또한, 부부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영(앤의 한국이름) 엄마', '지영 아빠'로 서로를 호칭한다거나 어린 아들에게 회초리를 켜어 오게 시키는 것도 우리네 전통적 가정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는 아이들을 돌보러 이역만리 한국에서 온 '순이(윤여정)'다. 모니카에게는 고춧가루와 멸치를 잔뜩 싸온 평범한 엄마지만 데이빗에게는 쿠키도 파스타도 못 만드는데다 화투를 칠 때는 욱도 잘 하고 프로 레슬링까지 즐겨 보는 범상치 않은 존재다.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가 어색했던 데이빗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가까워지지만, 두 사람의 애착 관계가 가장 강해졌을 때 순이의 뇌졸중과 함께 가정은 찢어질 위기에 처한다. 연속되는 사건 사고 속에서 모니카와 제이콥의 싸움과 갈등이 순이나 가난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진다. 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영영 없는 것일까.

한국계 미국인인 정이삭 감독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관조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데이빗 가족이 고생 끝에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관객들의 예상이나 기대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결말부는 파릇파릇한 희망이 냉소를 대신한다. 미나리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순이의 가족들은 실패와 아픔을 딛고 서로를 생명수 삼아 성장할 것이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새삼 뜨겁고 뭉클하다.

News Vol.249

위원회 뉴스



2021년 정기총회 개최 -신임 사무총장에 조준원 운영본부장 임명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2월 22일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주 위원(서울제6중재부·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을 선출하고, 조준원 신임 사무총장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신임 조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2월 8일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심의위원장에는 홍성무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부위원장에는 조원봉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2021년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설치·운영된다.

위원 동정

중재위원 사퇴

중재부	성명	재임 중 소속 직위	사퇴 일자
서울제7중재부	이형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1. 1. 31.
부산중재부	전상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2021. 2. 8.
강원중재부	김복형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
충북중재부	김성수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서울제1중재부	신현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1. 2. 21.
대구중재부	손현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
광주중재부	박길성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경남중재부	조운신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
제주중재부	김현룡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박태경 부위원장, 권정숙·박종권 위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촉

박태경 부위원장(서울제7중재부·전 KBS 프로듀서(EP), 제작위원)과 권정숙(서울제1중재부, 전 한겨레신문 방송미디어부장)·박종권(서울제5중재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위원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영장심 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1월 1일부터 관련 규칙이 시행됐다.

조경완 위원, 제3대 광주전남언론포럼 이사장 선임

조경완 위원(광주중재부·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광주·전남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광주전남언론포럼 제3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광주전남언론포럼은 지역 언론사 전·현직 보도국장과 편집국장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키 워 드 로 보 는 4 0 년 사



언론중재위원회가 40년의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미디어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신생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위원회 홍보 창구도 신문·방송 중심에서 블로그, 소셜미디어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2017년에는 위원회 최초로 웹드라마 <오보 찾아 흥신소>를 제작했는데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주인공 '오보해'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 10분 내외의 5회 영상으로 제작된 드라마는 스틸컷을 활용한 포토톤, 포스터와 함께 네이버 및 카카오 TV, 페이스북 등에 공개되었습니다.

웹드라마 제작은 디지털, 모바일 중심의 매체 환경에서 이용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위원회의 새로운 시도였다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위원회는 '오보해'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테니, 위원회가 어떤 도전을 하나갈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주세요!

